

전북·울산, 내일 K리그1 첫 승부

전북, 개막 3경기서 졸전 펼치며 2무1패 무승

K리그1 3연패 도전 울산은 2승1무 단독 선두

울산 상대로 승리시 순위 상승 발판 마련 가능성

단독 선두에 자리해 프로축구 K리그 1(1부) 3연패를 노리는 울산 HD와 개막 3경기서 졸전을 펼치며 마수걸이 승리를 신고하지 못한 전북 현대가 리그에서 첫 '현대(家) derby'를 펼친다.

울산과 전북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4 4라운드 승부를 펼친다. 올해 리그에서 벌이는 첫 대결이다.

두 팀은 이달 2023~2024 아시아축구 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대결을 펼쳤는데 울산이 웃으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맞대결 결과와 리그 초반 행보를 보면 울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모양새다. K리그를 대표하는 두 리그 클럽

의 정반대 행보다.

우선 울산은 포항 스틸러스와 1라운드(1-0), 김천 상무와 2라운드(3-2)에서 2승을 쌓았다.

지난 17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3라운드에선 3-3으로 비겼지만 2승1무(승점 7)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2위 광주 FC(2승1패 승점 6)에 승점 1점 앞선 단독 1위다.

가장 많은 7골을 터뜨리며 우승후보다운 화력을 과시 중이다. 이동경(3골), 마틴 아담(2골), 아타루, 장시영(이상 1골)이 고르게 터졌다. 두 번째로 실점(5실점)이 많은 건 불안 요소.

지난해 4위에 머물러 자존심 회복을 노리고 있는 전북은 매우 불안하게 출

발했다. 2무1패(승점 2)로 12개 구단 중 11위까지 밀렸다.

대전 하나시티즌과 개막전에서 1-1로 비겼고, 수원FC와 2라운드(1-1) 역시 무승부였다. 3라운드에선 상대적 약체로 평가받는 김천에 0-1로 일격을 당했다.

챔피언스리그 8강 2경기까지 포함하면 올 시즌 공식전 5경기에서 3무2패를 기록 중이다.

시즌을 앞두고 울산과 함께 양강으로 꼽혔던 걸 감안하면 매우 어울리지 않는 행보다.

라이벌 울산에 챔피언스리그 외 나머지 대회 승부에서 밀린데 이어 리그에서도 부진에 빠져 분위기가 잔뜩 가라앉았다.

전북이 이번 울산과 대결에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와 승점을 얻어 반전을 꾀하려는 배경이다.

자칫 안방에서 울산에 완패하거나 기대이하의 경기력이 계속된다면 단 페트레스쿠 감독의 입지도 흔들릴 것

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선두에 자리한 라이벌을 상대로 승리할 경우,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며 순위 상승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울산 입장에선 시즌 초반 처진 전북의 기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기회다.

두 팀 주축 선수들은 이달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국가대표팀에 부름을 받았다.

울산은 주민규, 김영권, 설영우, 이명재, 골키퍼 조현우가, 전북은 송민규, 김진수, 박진섭이 황선홍호에 합류했다가 복귀했다. 휴식이 이후 처음 갖는 경기라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다.

라이벌 구단의 대결단계 팬들의 관심이 크다.

전북 구단에 따르면, 28일 정도 기준으로 일반 예매에서 이미 2만여 석을 돌파했다. 시즌권 구매자를 고려하면 지난 1일 대전과 홈 개막전에서 기록한 2만1,762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인라인경기장에서 '질주'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대회 4월 18~24일 개최

남원시가 스포츠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인라인경기장과 실내체육관에서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남원시체육회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전북연맹과 남원시 연맹이 주관한다.

특히, 올해로 17회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 15개국(대만, 홍콩, 중국, 러시아 등) 1,500여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금빛 레이스를 펼칠 계획이며, 인라인하키와 예술을 접목한 슬라럼 종목에도 펼쳐 롤러 스포츠를 사랑하는 관중들에게 화려하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대회 기간 대회장과 주변 지역의 교통, 주차, 청결 등에 최선을 다해 기울이는 등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프로야구 2경기 우천 취소

프로야구 2경기가 비로 인해 취소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광주 롯데 자이언츠-KIA 타이거즈의 경기와 창원 키움 히어로즈-NC 다이노스의 경기 취소됐다고 전했다.

KIA와 키움은 시즌 두 번째 우천 취소가 확정됐고, 롯데와 NC는 첫 우천 취소다.

이날 KIA는 이의리를, 롯데는 이인복을 선발 투수로 예고했으나 맞대결이 불발됐다. 키움 하영민과 NC 김시훈도 시즌 첫 선발 등판이 무산됐다.

우천 취소된 경기는 추후 재편성된다. /뉴시스

한국마사회, 내달 7일까지 불법 경마 근절 캠페인

한국마사회는 내달 7일까지 건전 경마 문화 조정과 불법 경마 근절을 위한 국민 참여 불법 경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연 25만 명 이상 방문하는 서울경마공원 밖 곳곳에 진행된다.

한국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불법 경마 관련 퀴즈 정답을 맞으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선물하고, 캠페

인 기간 중 토요일 오프라인 홍보 부스와 초보 교실 행사 참여 고객에게도 기념품을 증정한다.

6월 온라인 마권 발매 전면 시행을 앞둔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경마의 건전한 정착 및 신규 고객의 불법 경마 접근 차단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불법 경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뉴시스



재독태권도사범원로회 부회장인 김홍영 사범이 관장으로 있는 독일 무사도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원을 찾아 수련과 체험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태권도원이 자랑스럽다”

독일 김홍영 사범 '무사도 태권도' 26일부터 수련 위해 태권도원 찾아

재독태권도사범원로회 부회장인 김홍영 사범이 관장으로 있는 독일 무사도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원을 찾아 수련과 체험을 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태권도원을 방문한 독일 무사도 태권도는 자체 수련과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 공간 및 태권도원 전광대·국립태권박물관 방문, 태권복·힐링 태권체조 등의 태권도 콘텐츠를 체험했다.

이번 태권도원 방문에는 일정상 함께하지 못한 김홍영 사범은 독일 중부 쾰른 지역에서 수련생 지도를 통해 독일 내 태권도 대중화와 대한민국 국위 선양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러한 공으로 지난해 설립한 '재독

태권도사범원로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김홍영 사범을 대신해 수련생들과 함께 태권도원을 찾은 아내 강보나 씨와 딸 김새롬 씨는 "인천공항에 내릴 때부터 수련생들은 '와~'라며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한국 방문의 주목적인 태권도원을 들어설 때 또다시 '우와~'라고 탄성을 질렀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뻐뻐했고, 고국과 태권도가 정말 자랑스러웠다"라며 "독일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 방문을 계획했고 태권도원에서 태권복 등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통해 수련생들이 매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라며 내년에도 태권도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독일 무사도 태권도를 비롯해 4월에는 미국 보스턴, 호주, 프랑스 등에서 연이어 태권도원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라며 "5월부터는 베트남에서도 대규모 스포츠 관광객이 태권도원을 찾는 등 무예와 스포츠로서 태권도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홍영 사범의 아내 강보나 씨는 올해 1단 승단을 준비하고 있고 딸 김새롬 씨(5단)는 독일 국가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개원 10주년 태권도원 "4월 한달간 무료입장"

플레이원·상설공연 등 마련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4월 한달간 태권도원 무료입장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거리를 운영한다.

먼저, 태권도진흥재단은 4월 말 계획하고 있는 '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을 축하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무료입장을 진행한다. 태권도원은 성인 기준 4,000원의 입장료로 단종 소지자 할인, 태권도복 착용자 할인 등 다양한 할인을 더해 저렴한 입장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태권도원 상설공연과 국립태권박물관 관람, 순환버스 탑승 등이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고 23만4,000㎡의 청정 자연 태권도원을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등 높은 가성비로 방문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콘텐츠를 4월부터 운영 재개 및 확대한다.

계절 특성을 고려해 동계 기간 미운영했던 '플레이원'이 4월부터 시작한다. 야외 복합체험시설인 플레이원은 200여 미터 길이에 16개 체험 코스를 통과하는 기록형 체험시설로 친구, 가족 등 방문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태권도원 길러 콘텐츠인 '태권도원 상설공연'이 확대된다.

그동안 금요일 오후와 주말에만 공연하던 것을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등 매일 2회 공연으로 진행한다. 태권도원 매표소에서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발급받아 상설공연 관람을 할 수 있고 공연 후에는 단원들과의 기념촬영,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에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2024.04.02.-04.07.

교동미술관 본관 1전시실 10:00 ~ 18:00

CHAE YOUNG, MOON

THE 7TE SOLO EXHIBITION BY

일상 속 보물찾기